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과학·예술 융합한 新패러다임 제시”

오가노이드 개발자 컨퍼런스

6월 13일~14일 코엑스 마곡서 열려
퍼포먼스·전시 등 축제형식 진행
바이오 혁신기술 저변 확대 도모
연구자·산업 관계자 협력 기회 창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는 6월13~14일 서울 마곡동 코엑스 마곡에서 ‘오가노이드 개발자 컨퍼런스(ODC25)’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 시작된 ODC는 오가노이드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연구와 응용 가능성을 탐구하며, 과학과 예술, 기술과 문화를 융합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ODC25는 ‘다름에서 시작되는 창조적 에너지: 혁신의 교차점’이라는 주제로, 과학과 예술이 융합하여 만들어내는 혁신적 가능성을 조명한다. 오가노이드 연구의 최신 동향과 더불어,



인공지능, 정밀의료, 지속 가능한 바이오 기술 등의 발전 가능성을 조망할 예정이다.

특히 ODC25는 단순한 학술대회를 넘어 과학, 예술, 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과학적 혁신과 예술적 감성이 결합된 퍼포먼스, 디자인 전시, 기술 기반 필름 페스티벌 등이 다채롭게 마련되며,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쉽게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컨퍼런스 첫날인 6월13일에는 ‘오가노이드 및 인공장기(Organoid & Arti-

ficial Organ)’ ‘오가노이드 지능(Organoid Intelligence)’, ‘정밀 의학 및 치료(Precision Medicine and Therapy)’, ‘지속 가능한 기술(Sustainable Technology)’ 등의 세션을 통해 오가노이드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의료 및 바이오 기술을 소개한다. 오가노이드 기반 인공장기,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명과학 연구, 맞춤형 치료제 개발 등 최신 연구 성과가 공유될 예정이며, 지속 가능한 기술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탐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둘째 날(6월 14일)에는 ‘푸드테크(F-

ood Technology)’, ‘AFI 글로벌 아이디어 챌린지(AFIGIC)’, ‘K-패션테크 놀로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융합 가능성을 다룬다. 특히 ‘AFI GIC’는 동물 실험 없는 과학을 주제로, 전세계 연구자와 혁신가들이 참여하는 창의적 아이디어 경연 대회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패션과 첨단 소재가 결합된 ‘K-Fashion Technology’, 대중과 함께하는 ‘삼프로TV 오가노이드 토크쇼’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번 ODC25에서는 ‘아티언스(Artience)’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된다. 아

티언스는 2011년부터 대전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시작된 협력 프로젝트로, 과학자와 예술가가 함께 과학적 원리를 예술적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 ODC25에서는 오가노이드와 생명과학 기술이 예술적 언어로 재해석되는 과정이 공개되며,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창의적 사고를 확장하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ODC 위원회는 이번 ODC25를 통해 오가노이드 기반 바이오 혁신 기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글로벌 연구자 및 산업 관계자들과의 협력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

행사 관계자는 “ODC25는 기술과 예술, 과학과 인문이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며, “오가노이드 기술이 단순한 연구를 넘어 미래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HLB, 간암신약 美 진출 세번째 도전 박차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 FDA서 2차 서료보완요구서한 받아 오는 5월 재신청... 7월 최종결과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전문회사 HLB 그룹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을 정조준해 세 번째 도전에 박차를 가한다.

23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HLB는 지난 20일(현지 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해 2차 서료보완요구서한(CRL)을 받았다.

HLB는 지난 2024년 9월 20일 미국 FDA에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 품목허가 재승인 서류를 제출해 6개월 만에 2차 CRL을 수령한 상황이다.

2차 CRL은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은 병용요법으로 쓰이므로, 캄렐리주맙이 승인 요건을 갖출 때까지 미국 FDA는 결정을 보류한다는 내용이다.

캄렐리주맙은 중국 항서제약이 개발한 약물이다. 올해 1월 초 미국 FDA가 실시한 캄렐리주맙 화학·생산·품질(CMC) 실사에서 세 가지 경미한 사항을 지적받았다. 이번 미국 FDA 승인 획득 실패는 이 세 가지 사항을 완전히 보완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HLB 측은 “CRL에는 미비점이 무엇인지 적시되지 않아 중국 항서제약이 미국 FDA와 접촉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 밝혀 왔다.

이와 함께 HLB는 세 번째 승인 신청은 보다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을 지적받은 만큼, HLB는 향후 한 달 내에 항서제약이 지적 사항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HLB 측은 “오는 5월 재신청을 완료해 이르면 올해 7월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해당 재신청사가 클래스 1로 분류되는 경우다. 미국 FDA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내에 CMC 현장에 가서 보완내용을 직접 확인할 것인지에 따라 클래스 1, 클래스 2 등으로 구분한다. 클래스 1은 2개월, 클래스 2는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HLB는 앞서 2023년 미국 FDA에 처음 도전장을 냈지만, 2024년 5월 미국 FDA로부터 1차 CRL을 수령해 두 번째 도전을 준비했다. 이후 미국 FDA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HLB가 간암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한 두 개의 임상병원 중 두 곳을 추가로 해당 실사를 진행했고, ‘규정을 잘 준수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HLB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리보세라닙 CMC 보완실사도 완료했다.

이처럼 리보세라닙은 HLB 바이오 사업의 핵심 성장동력이다. 리보세라닙은 경구용 표적 항암제로,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신생혈관 형성을 유도하는 신호전달 과정에 선택적으로 작용한다.

리보세라닙은 원개발사는 미국 어드벤처연구소로, HLB 미국 자회 엘레바테라퓨틱스가 2007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을 인수했다. 엘레바테라퓨틱스는 부광약품에게 한국 판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2018년 부광약품은 한국 판권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HLB생명과학에 양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HLB는 리보세라닙을 개발해 왔고,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간암뿐 아니라 위암, 대장암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병용요법에 주력했다. 또 단독 요법으로는 선양양성암 등 적용중으로 한다.

진양곤 HLB그룹 회장은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쉽 없이 노력해 왔으나 실망스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하다”며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중국 항서제약과 빠르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

리가캠바이오, 英 익수다 경영권 확보

2500만달러 규모 투자 진행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가 영국파트너사 익수다 테라퓨틱스에 25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는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지분 투자와 함께 익수다 기존 주요 투자자들의 지분을 매입하는 권리를 확보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투자 금액 중 1차에 해당하는 1500만 달러는 지난 2024년 4분기 투자를 완료했다. 추가 1000만달러 투자는 올해중에 이뤄진다. 투자 완료 후 리가캠바이오는 익수다 지분 26.6%를 보유하게 된다.

또 리가캠바이오는 익수다 지분을 3년 이내 투자원금에 매입 가능한 옵션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투자자간 계약

을 통해 최대 73.9%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리가캠바이오는 익수다가 구축한 항체·약물접합체(ADC) 파이프라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갖는다.

리가캠바이오는 그동안 익수다에 ADC 후보물질인 LCB14, LCB73, ADC 플랫폼 LCB85 등 ADC 원천기술을 기술이전해 왔다.

그 결과, ‘LCB14’의 경우, 익수다를 통해 호주에서 글로벌 임상 1상에 착수했다. /이정하 기자

셀트리온, 500억 규모 추가 자사주 매입

올해 총 8066억 자사주 소각 전망

셀트리온은 500억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매입하는 자사주는 26만8385주이며, 자사주 취득은 3월 24일부터 장내매수를 통해 진행한다. 취득 후 전량 소각할 계획으로 셀트리온이 올해 소각하는 자사주 규모는 총 8066억원이 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당사 자사주 총 보유 수량의 25%에 달하는 약 5533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추진해 올해 1월 완료했다. 또 이달 14일 약 2033억원 규모의 올해 취득한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셀트리온은 연내 추가 매입하는 자사주도 전량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주식 동시 배당도 실

시할 예정이다. 현금 배당은 보통주 1주당 750원으로 총 약 1538억원 규모를, 주식 배당은 보통주 1주당 0.05주로 총 약 1025만 주를 각각 배당한다.

이와 함께 이날 정기 주총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을 다룬다. 배당 수익 증가 효과가 높은 약 6200억원 규모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마련해 향후 주주 배당에 활용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실천하겠다”며 “확고한 기업가치 구축과 주주환원 정책 실현을 통해 투자자들과 동반 성장하면서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약 436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과 약 7000억원 이상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한 바 있다.

/이정하 기자

에이피알 ‘포먼트’, 시그니처 퍼퓸 재단장

쿠로미 한정판도 공개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은 퍼퓸&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포먼트에서 ‘시그니처 퍼퓸’ 제품군을 재단장했다. 또 ‘쿠로미 한정판’도 공개했다.

에이피알은 지난 2017년부터 국산 토종 향수 브랜드로 포먼트를 선보여 왔다. 이번 재단장을 통해 제품 디자인에 변화를 주고 브랜드만의 감성을 강조했다.

기존의 직사각형 형태의 용기를 원통형 용기로 바꿨다. 특히 향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용기나 향수 용액 색상을 각 제품마다 다르게 적용했다.

새 디자인은 코튼 허그, 코튼 베스, 코튼 메모리, 코튼 딜라잇부케 등 4종에 먼저 적용됐고 향후 다른 제품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이피알은 ‘시그니처 퍼



포먼트 ‘쿠로미 한정판’ 2종. /에이피알

퓸’ 대표 제품인 ‘코튼 허그’와 ‘코튼 메모리’ 2종은 ‘쿠로미 한정판’으로 내놓는다. 향수 뚜껑을 쿠로미 얼굴 모양으로 입체감 있게 특별 제작했다. 또 제품 라벨, 포장 상자 등에 귀여운 쿠로미의 모습을 담아 소장가치를 높인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기존 포먼트 향수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높아 출시 예정 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